

2023 March 그룹사 NEWS

▶ HD현대

튀르키예에 방한용 겨울옷 보내



HD현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방한용 겨울옷을 보내기로 했다.
HD현대는 지난 2월 13일 "임직원이 입지 않는 옷장 속 겨울 점퍼를 포함한 방한용 의류와 회사가 보유한 동절기 잔여 근무복 등을 모아 튀르키예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방한용 겨울옷은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으로 긴급 배송할 예정이다.
현지의 이재민은 음식과 물은 정부를 통해 지원받고 있지만, 날씨가 춥고 지난주부터 눈이 내려 당장 입을 방한용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현대는 지난 2월 8일,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해 굴착기 10대를 지원했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10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조선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HD현대 권오갑 회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블록 출항식'을 가졌다.
지난 2010년 준공한 군산조선소는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2017년 가동을 중단했다가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선박 수주가 늘며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군산조선소는 컨테이너선용 110t급 블록 2개를 바지선에 실어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로 보냈다. 이 블록은 울산에서 1만 5,600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올해 약 10만 t의 선박 블록을 생산해 약 1,8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군산에서 생산한 블록은 전량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로 운송된다. 현재 500여 명인 생산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에 1,000여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군산조선소가 우리나라 조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3월 준공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180만 m²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 1개와 1,650t 크레인 등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다.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CEO가 직접 행킨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1월 31일, 한양정밀과 'ESG 경영 컨설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양정밀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굴착기 프레임, 붐, 버킷 등 제관품을 거래하고 소형 굴착기 OEM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협력사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월, CEO 주관의 '공급망 ESG 경영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활동에 직접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이 그 시작으로, 한양정밀 역시 EU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인력과 절차를 고심하던 차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조영철 사장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동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협력사의 해외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노사·협력사 '무재해 실천' 한뜻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월 7일 울산 본사에서 김형관 사장과 정영진 노동조합 위원장, 전영길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노사 및 협력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노·사·협 상생 안전문화 조성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노·사·협 대표 격려사, 안전가원제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노·사·협 대표들은 안전·보건·환경 최우선, 안전수칙·표준작업 준수, 동료안전 챙기기, 환경오염 예방, 기초질서 지키기, 소통안전 문화 정착을 함께 외치며 '안전하고 깨끗하며 행복한 작업장 조성'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김형관 사장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의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사 및 협력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